

불황극복 위해 자율적 사육감축운동 결의



본 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8일 대전소재 라온컨벤션에서 계란 수급안정화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해 '2016년 산란계농가 상생발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는 산란계산업 발전을 위해 본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자율적 사육수수 감축 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으며 선진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동참키로 하였다. 한편, 건국대학교 김정주 명예교수가 '계란 수급안정화 및 산란농가 상생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본회 오세을 회장, 본회 채란위원회 이상호 위원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이 패널로 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오세을 회장(본회)



▲ 이상호 위원장(본회 채란위원회)



▲ 안영기 위원장(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계란 수급안정화 및 산란농가 상생협력 방안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산란계 사육농가 및 사육수수를 보면 사육농가는 꾸준히 감소하고 사육수수는 꾸준히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입식열풍으로 수급이 불안정해 졌으며 일부 기업농, 대군농가의 사육규모 확대도 한몫했습니다. 계란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 계란유통센터 설립 추진, 산란계 DB 구축, 난가공산업 육성, 자율적 사육수수 감축운동 등이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김 정 주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결 의 문

우리 채란인들은 계란 수급불안정과 축산 환경규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산란계산업은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규모화·대형화로 인한 계란가격 폭락으로 산란계농가들은 폐업과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전국 채란인들은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먼저 우리의 자구책으로 적정 산란계 사육수수 유지를 위해 아래사항을 적극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산란계산업의 영위와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요구를 넘어 대한양계 협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채란인들은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사육수수 10% 감축 운동에 적극 참여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대국민 신뢰 확보에 적극 노력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불투명하고 낙후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계란유통센터의 건립 및 선진적인 유통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2016년 4월 8일

전국 채란인 일동